



북미, 3대 크라프트지 생산업체 가격 인상 톤당 40~50달러

북미 3대 크라프트지 생산업체들이 톤당 40~50달러 수준의 가격인상을 발표했다.

Longview Fibre사는 Unbleached Semi-Extensible 'TEA-Kraft'에 대해 3월 15일부터 톤당 5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가을에 실시한 Sack Kraft Paper에 대한 톤당 40달러의 인상을 완료했다.

Premium 1사도 Shipping Sack Paper 지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톤당 40달러의 가격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KapStone Paper and Packaging Corp.도 Multiwall 지종에 대해 톤당 40달러, Bag and

Sack Paper 지종에 대해 톤당 50달러의 가격인상을 계획 중이다.

Longview Fibre사를 포함한 위의 3사는 북미 크라프트지 생산량의 46%에 해당하는 2백 50만톤의 크라프트지를 생산하고 있다.

Longview사와 KapStone사는 지난해 International Paper에게 각각 연산 40만톤의 크라프트 생산설비를 매입했다.

최근 북미 Shipping Sack Paper의 가격은 수요증가와 공급부족, 우드칩 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럽시장에선 Unbleached Shipping Sack Paper의 가격이 전년동기에 비해 톤당 2백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유럽은 UPM-Kymmene의 핀란드 공장 폐쇄와 Mondi Packaging사의 설비전환으로 인한

공급감소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29만 5천톤 규모의 설비폐쇄가 2분기에 예정돼 있으며 기상악화와 원료공급의 부족으로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의 설비들이 조업중단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크라프트지의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되자 북미 크라프트지 생산업체 뿐 아니라 남미의 크라프트지 생산업체들도 유럽지역으로 수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유럽의 크라프트지 생산업체들과의 첨예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AF&PA에 따르면 2006년 미국 크라프트지 출하는 전년과 비교해 1.0% 감소한 1백58만톤으로 나타났는데 Unbleached는 약간 증가했으나 Bleached는 10.3% 감소했다. 미국의 크라프트지 수입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52만톤으로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5.3% 감소한 29만톤에 그쳤지만,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의 수입이 37%증가한 22만톤으로 나타났다.

중국 및 유럽, 골판지원지 생산설비 신설
시장점유율 지속 확대

북미 골판지원지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동유럽의 골판지원지 생산설비 신설은 계속 되고 있다.

중국 최대 골판지원지 생산업체인 Nine Dragons Paper사는 최근 지방정부와 Jiangjin시에 대규모 골판지원지 생산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가동할 예정인 연산 45만톤의 설비를 포함한 12대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여 2008년까지 회사의 골판지원지 생산능력을 연간 6백65만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회사는 현재 10대의 설비에서 연간 2백90만톤의 골판지원지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2대 골판지원지 생산업체인 Lee&Man사도 시장점유율을 확대를 위한 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연산 96만톤에 달하는 3대의 골판지원지 시설을 2008년까지 마쳐 회사의 연간 생산능력을 4백10만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유럽의 Mondi Packaging사도 동유럽에 연산 50만톤의 재생 골판지원지 설비의 시설을 계획 중이다.

페루, 플라스틱 용기 마개 분야 '유망'
물, 탄산음료 등 소비 증가

활발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페루에서 플라스틱 용기마개(뚜껑)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플랜트 등 관련분야 진출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마개 생산업체 Alusud사 경영책임자 산티아고보르하(Mr. Santiago Borja Godoy)씨는 2007년 페루 전체의 음료수, 생수, 유제품, 화장품, 약품 등 플라스틱 뚜껑 생산이 2005년보다 20% 증가하고 판매량이 3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50%가 내수이고 나머지 50%가 불리비



아, 에콰도르 등지로의 수출용으로, 주요한 생산 업체로는 Alusud 이외에 Iberoamericana de Plasticos사가 있다.

페루는 상수도 수질이 좋지 못해 수도물은 정수하지 않고는 마시기가 어려운 정도여서 병에 든 물을 사서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뚜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플라스틱 병뚜껑 수요가 2005년 보다 17% 증가했으며 올해도 큰 폭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경제불황에는 물이나, 탄산음료 소비시 3리터 이상의 대용량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지만 경제가 좋아질 때에는 1리터 이하의 소용량을 훨씬 더 찾기 때문에 경제성장기에는 당연히 플라스틱 용기마개 수요도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 산티아고 씨의 설명이다.

페루경제가 최근 매년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페루에서는 물이나 탄산음료 용기에는 직경 28밀리미터의 뚜껑을 사용하며 주스, 요구르트 등에는 38밀리미터나 48밀리미터의 마개를 사용하고 있다.

생산방식은 크게 사출(injection)과 압력(compresion) 방식이 있는데 페루에서는 압력방식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압력생산 업체는 Alusud와 Iberoamericana de Plasticos 양사가 있으며 사출업체도 수개 있으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한다.

산티아고 씨에 따르면 원자재는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틸렌으로 주로 브라질, 칠레, 중국

등에서 조달하며 플라스틱용기 뚜껑 생산플랜트는 미국 Alcoa 기계 및 이탈리아의 SACMI라는 기계도 잘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용기마개는 비단 물이나 음료수 뿐만 아니라 식용유, 약품, 화장품, 주방용 세척제 등의 분야에서도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티아고 씨는 이들 분야의 마개는 그 생산비용도 더 높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일반 음료수, 물 용기마개보다 더 시장성이 좋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시장이 호황을 보임에 따라 병마개 생산업체는 모두 생산시설을 1백% 가동하고 있으며 더욱 저렴하고 생산성 높은 플랜트 및 원자재, 장비, 몰드를 찾고 있다.

페루는 제조업 발달이 매우 미약하지만 플라스틱 분야는 나름대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페루정부는 장기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플라스틱공업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페루 플라스틱 용기마개 생산플랜트, 플라스틱 원자재, 몰드, preform, 플라스틱 impression 등 분야에 대한 국내 업계의 관심과 진출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우크라이나, 식품 가공·포장기계 전망 밝아
매년 15%대 성장

우크라이나는 방대한 농토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 기반을 둔 식품 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가공 및 포장 기계의 수요가 연간 5억달러(2006년)에 달하며 지난 3년간 약

15%씩 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식품 가공 및 포장 기계의 공급원을 분석해 보면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에서 직접투자를 통해 도입된 것이 48%, 자국 생산이 27%, 수입이 23%, 기타 2%이다.

이 중에서 특히 식품 포장 기계의 수요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이며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포장 기계 산업이 취약함을 보여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 생산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종전 국영기업이었던 대규모 기업들과 시장경제 도입(1991년) 이후에 세워진 중소 규모의 생산 기업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들의 생산 제품은 주로 중저품질 제품이어서 고급품은 대부분 외국산이다.

지난 2~3년간 식품 관련 법규가 강화(예: 빵류는 옥외 판매시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함)되고 있고 서구식 대형 유통점의 판매망 확대에 의한 소비자 수준의 급격한 상승으로 식품 포장 수요가 급격히 다양화하는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수요 증가에 대처해 종전에 수동 또는 반자동 생산기계가 완전 자동(오토메이션)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화 기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식품 및 포장 기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영국 스웨덴 등의 제품이 대부분이며 한국산의 진출을 거의 없어 국내 업체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사용에 간편한 포장기계들에 대한 진출이 용이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일차 포장 기

계를 저렴하게 공급 후 포장 재료를 지속 공급을 통한 수익 실현 마케팅 방법도 추천할 만하다.

미국, 플라스틱 용기 시장 급성장 품질 및 디자인 개발로 미국 시장 진출

플라스틱 음식 보관 용기 시장은 인체에 무해하고 성능이 좋은 플라스틱 소재가 개발되고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음식과 각종 용품을 쉽게 보관하고 정리할 수 있어 플라스틱 용기 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 범위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 음식 보관 용기 시장은 2003년 약 US\$ 1억3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US\$ 2천억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고 시장 조사 업체인 Mintel International Group사가 밝히고 있다.

음식 보관 관련 제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은 플라스틱 백으로 전체 시장의 48.5%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은 알루미늄 포일이 24.9%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전체 음식 보관 관련 제품 시장에서 플라스틱 음식 보관 용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다소 낮으나 플라스틱 백 시장과 알루미늄 시장을 잠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 음식 보관 용기 제품은 패키지로 구입하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의 경우 개당 가



격이 약 US\$ 1달러 정도에서 고가의 경우 약 US\$ 6달러 수준이며 몇 번 쓰고 버리는 제품, 반영구적인 제품 등 아주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플라스틱 음식 보관 용기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플라스틱 밀폐용기 기능 개선, 색상을 입힌 반투명 제품, 그리고 표면을 다양한 그림으로 장식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플라스틱 음식 보관 용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플라스틱 백은 물기 있는 음식물 보관과 냉장고에 정리 정돈하는 데 어려움을 개선한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플라스틱 음식 보관 용기의 판매 시기는 주로 연말에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가족 모임에서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말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 플라스틱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인체에 무해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다.

미국 플라스틱 음식 보관 용기 시장은 저가 제품과 고가 제품이 상존하고 있으며 재질과 브랜드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가격 차가 많이 난다.

가장 유명 제품으로는 Tupperware사 제품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에 밀려들어와 경쟁

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지만 프리미엄 전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음식 용기 제품은 크게 용기가 얇고 몇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과 재질이 두꺼운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이 중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Glad Ware의 제품으로 몇 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제품을 가격은 저렴하나 뚜껑이 밀폐되지 않아 물기 있는 음식물을 보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Sure-grip, Pyrex 브랜드 제품이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며 가장 고가 제품으로는 Tupperware가 있다. ☐

독 사 결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

